

발행일 2018. 2. 14.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발행인 박재욱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28
제 작 ㈜봄인터랙티브미디어

{ 세종시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개선방안 }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안용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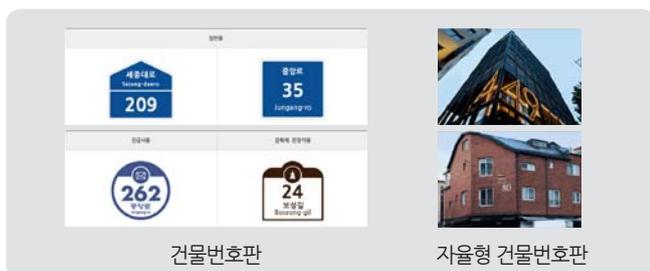
I. 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이 의무화되어, 민원서류나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반드시 도로명주소가 기재되어야만 처리가 가능해짐.
- 시민들은 도로명주소를 공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법정주소로 인지하고는 있지만, 실생활에서 이용할 때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국내외 도로명주소 관련 정책 사례와 세종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인지도, 활용도 및 만족도, 불편사항 실태 등을 조사하여, 도로명주소의 쟁점사항과 세종시 도로명주소 정착 및 생활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II. 도로명주소 개요

- 주소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 회사 등이 위치하고 있는 곳을 이름으로 표현한 것이며, 각종 법률관계의 기준이자 일상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임.
- 도로명주소는 부여된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주소에 의하여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주소제도임.
- 도로명주소의 도입목적은 도로명주소를 통해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그림 1>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III. 국내외 도로명주소 정책사례

국내 도로명주소정책

-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 생활화, 전 국토에 종합적인 주소체계 구현, 주소기반 4차산업 창출을 담은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2018~2022)'을 최근에 발표하고 시행 중임.

국외 도로명주소정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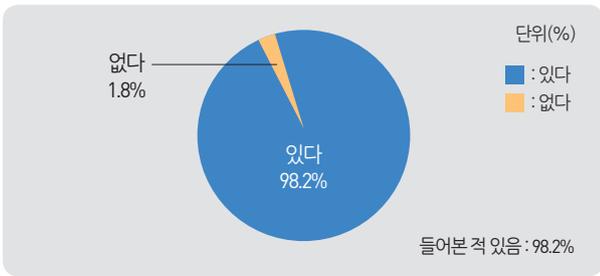
- 예전부터 도로명주소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에서는 공공분야 및 민간부문 활용에 적합하도록 운영·관리하고, 각 기관에서 전문 부서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명 부여 및 변경 시 위원회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참고하여 정부가 결정·관리 주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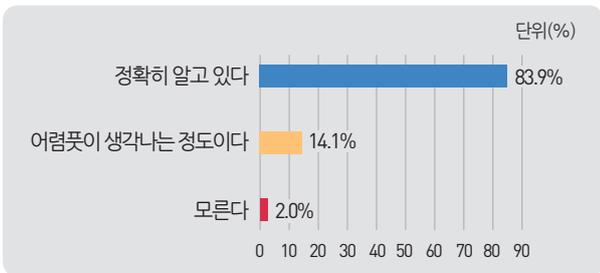
<그림 2> 국외 도로명 안내시설 사례

IV. 세종시민 도로명주소관련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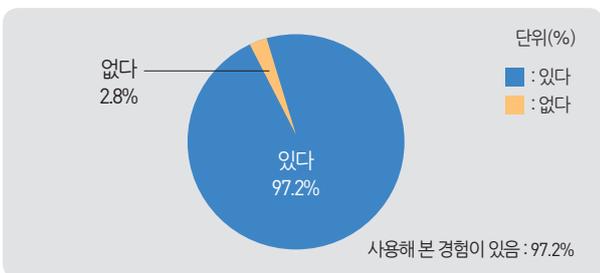
- 세종시민들의 2017년 도로명주소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세종시 거주 만 10세 이상 550명 시민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인지도, 숙지도, 활용도, 만족도, 불편 및 개선사항 등 5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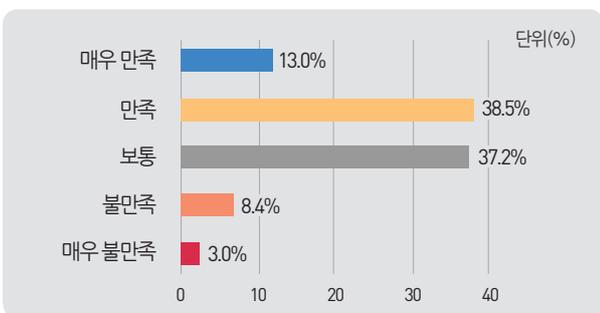
<그림 3> 인지도 설문분석 결과



<그림 4> 숙지도 설문분석 결과



<그림 5> 활용도 설문분석 결과



<그림 6> 만족도 설문분석 결과

-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 관련한 주요 의견으로는 '도로명 주소를 기억하기 어렵다', '공간적 위치 파악이 어렵다', '도로명주소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등이 있음.

V. 세종시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정책제언

1.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홍보 및 교육 정책

- 세종시 특성인 신도심지역은 계획도시로 이주민 위주의 신규 전입 세대가 많은 지역임과 동시에 읍면지역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의 전환 과정을 가진 지역이므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숙지도 및 만족도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역별 맞춤형 홍보 및 교육 정책을 적용해야 함.

2. 도로명주소 개선 가이드라인 구축

- 세종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개선이나 정비시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공간적 위치를 파악하기 쉬운 대표적인 도로명들을 선별하여 부각시키고 홍보하여, 도로명을 통해 '대략적 위치 파악'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3.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노출 증가

- 도로명주소의 활용도가 현재는 공공기관, 우편물, 택배 등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를 자주 노출시키고, 지번주소를 혼용할 수 있는 상황을 줄여야 함.
- 관내 민간부문 사업장들의 홈페이지, 영수증, 명함 등에 도로명주소 기입전환을 장려하거나 비용을 지원하여, 이용자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자주 접하도록 해야 함.

4. 도로명기반 공동체 커뮤니티 구축

- 기존 지번주소에서 '내가 속해있는 동(마을)'에서 느끼는 생활공동체의 소속감을 도로명주소에서도 '내가 속해있는 도로명'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정서적 유도 전환이 필요함.

5. 도로명주소기반 정책활용 및 신성장사업 확충

- 도로명주소의 위치·길 찾기 장점을 다른 중요 시책이나 신성장 사업에 연계하여 도로명주소의 장점과 잠재성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음.
- 응급 및 위험상황시 도로명주소는 응급출동 대응을 신속하게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이 우월하므로, 안전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도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제4차 산업혁명은 공간정보기반의 데이터를 중요시하며, 도로명주소는 이 점에서 매우 유리하므로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드론 택배,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1월대전 경제동향



종합평가

최근 대전지역 경제는 전월대비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생산과 건설경기가 활발한 가운데, 소비와 대외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을 보여 전반적으로 전월에 비해 회복된 모습임. 전년동월대비로는 소비가 활발하고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생산과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고용상황이 악화되어 전월의 침체된 경기가 이어지는 모습임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6년 3월과 8월을 제외하고 후퇴국면을 보였고, 2017년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회복기미를 보이다 4월 이후 다시 후퇴국면이 진행되었으나, 11월들어 소폭 상승함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저효과 등으로 생산·소비·설비투자가 반등하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임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개선,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서비스업 고용부진 등 고용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통상현안, 자동차파업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함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기 회복세가 일자리·민생개선을 통해 체감될 수 있도록 '18년 경제정책방향 등 정책 노력이 가속화되어야 할 것임

01

경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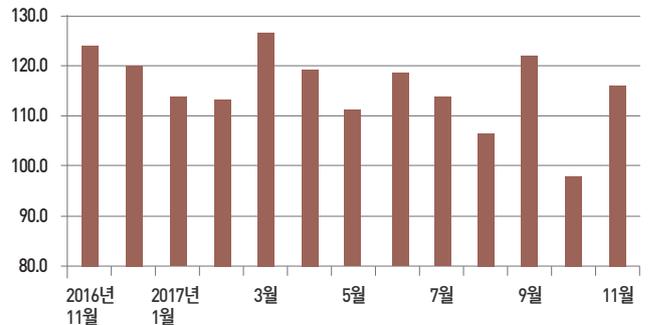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02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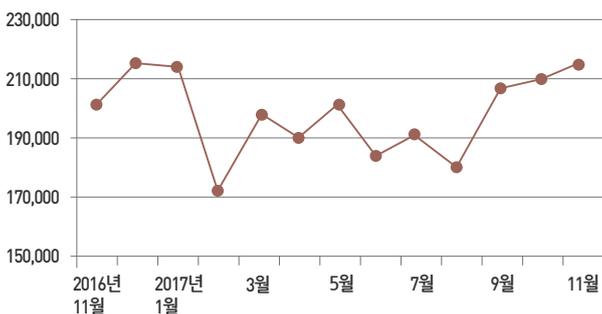
제조업생산지수



03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04

고용

실업률

